

누구의 경험으로서 들을 것인가: ‘집단지결’과 증언

심정명*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집단지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소설
3. ‘집단지결’에 대해 듣는 사람의 위치
4. 맺으며

〈국문초록〉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이라 일컬어지는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미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게라마 제도에서는 가족, 친지, 이웃이 서로를 죽이고 자살하는 ‘집단지결’이 일어났다. 군의 강제 여부를 둘러싼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관련해 ‘집단지결’ 생존자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간적·공간적으로 사건의 외부에 있는 이들이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집단지결’이 일어난 가상의 섬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고 책임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주인공을 다룬 오시로 다쓰히로의 소설 『가미시마』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집단지결’이 가해와 피해의 중첩되는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지결’에 관한 증언과 야카비 오사무, 신조 이쿠오, 오카모토 게이토쿠 등의 논의를 경유해 사건의 바깥에서 그것을 타자화하지 않고서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어 : ‘집단지결’, 오키나와, 오시로 다쓰히로, 가미시마, 증언

* 건국대학교

1. 들어가며

1945년 3월 하순부터 6월 하순에 걸쳐 오키나와(沖繩) 본도와 주변 섬들에서는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200,656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그중 오키나와 현 출신인 122,228명 가운데 대략 94,000명이 일반 주민이라 추정된다. 당시 오키나와의 총 인구가약 45만 명이었으니 전체 주민의 삼분의 일 정도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¹⁾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긴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본토 결전’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시키는 사석(捨石) 작전을 썼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에 이르는 일반 주민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미군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뿐 아니라 ‘집단자결(集團自決)’이라 칭해지는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집단자결’이란 민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강제적인 집단사(集團死)를 가리키는데,²⁾ 미군이 가장 먼저 상

1) 松島泰勝, 『琉球獨立論: 琉球民族のマニフェスト』, (バジリコ株式會社, 2014), 55~58면.

2) 원래 ‘집단자결’은 전쟁 당시에 이를 가리키는 데 쓰이던 ‘옥쇄(玉碎)’라는 말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교과서 검정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재판에서 원고 측은 ‘집단자결’이라는 용어가 주민의 자발성을 의미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강제 집단사’ 혹은 ‘강제사’, ‘군사적 타살’과 같은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였다. 야카비 오사무(屋嘉比收)는 이러한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 맥락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이라는 틀을 전제로 한 법정 투쟁 속에서 국가 측의 견해에 대한 대항언설로 형성되었다는 점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성의 검증’을 넘어서는 기억의 문제로 이해하기 위해 ‘집단자결’이라는 명칭을 선택한다. 屋嘉比收, 『戦後世代が沖繩戦の当事者となる試み』, 『友軍とガマ』(社會評論社, 2008) 참조. 미야기 하루미(宮城晴美) 또한 “비판해야 할 것은 ‘집단자결’이라고 표현하는 주민이 아니라 오키나와 전투의 본질을 왜곡하는 역사수정주의자”라며, 경험자들이 이를 ‘집단자결’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자결’이라는 관용적인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宮城晴美, 『座間味島の「集團自決」』, 같은 책, 80면. 이 글에서는 이

룩한 게라마(慶良間) 제도의 경우 도카시키키(渡嘉敷)섬에서 약 300명, 자마미(座間味)섬에서 135명, 게루마(慶留間)섬에서 수십 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미군에게 붙잡히면 여자는 강간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하고 남자는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다”라고 믿었던 섬 주민들이 미군이 섬에 상륙하자 친족이나 이웃을 죽이고 자살한 것이 바로 ‘집단지결’이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 ‘집단지결’은 미야기 하루미가 지적하듯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어른이 아이들을,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가족 구성원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죽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지결’에는 국가에서 출발하여 군대를 거쳐 가장으로 내려오는 명령 계통이 작동하였다.³⁾ ‘집단지결’을 가능하게 했던,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여성이 죽음으로써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사고가 가부장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⁴⁾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로

사건이 엄밀하게 말해 ‘자결’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야카비와 미야기 등의 논의에 근거하여 경험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정의할 때 쓰는 ‘집단지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 3) 宮城晴美, 앞의 글, 80면. 또한 ‘집단지결’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를 들고 있는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는 A. 지역의 지도자층(촌장, 관공서 직원, 구장, 조합장, 순사, 교장, 교원), B. 성인 남성(재향 군인, 방위대원 외/ 아버지·남편 등 가장), C-1. 소년, C-2. 소녀, D. 성인 여성, E. 노인, F. 아이들로 지역의 계층구조를 나누고, 각각의 계층이 ‘집단지결’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林博史, 『沖繩戦 強制された「集団自決」』(吉川弘文館, 2009) 참조.
- 4) 여성 가족 구성원이 강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과도한 공포는 중국 등에 종군하여 저지른 성적 폭력 경험이 전도된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으로는 坂元ひろ子, 『沖繩とアジア社會をジェンダーの視点で讀む: 移動、戦争, 「語ることができる/できない」記憶の問いかけ』, 新城郁夫編, 『攪亂する島』(社會評論社, 2008) 참조. 하야시 히로후미나 시마 쓰요시(嶋津与志) 등도 ‘집단지결’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 중국 등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폭력 행위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林博史, 앞의 책 및 嶋津与志, 『沖繩戦を考える』(ひるぎ社, 1983) 참조. 또한 하야시는 ‘집단지결’이 일어난 게라마 제도에서 일본인으로 동화정책과 황민화정책이 철저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차별과 학대를 받던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온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게라마 제도의 좁은 섬에는 주3)에서 언급한 지역사회의 계층구조 외에도 일본-오키나와-조선이

가족이나 친지, 이웃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묶여 있는 이 참혹한 경험에 대해 살아남은 주민들이 많은 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야카비에 따르면 주민들이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 공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1972년)와 오키나와 전투 33주기(1978년) 이후이고, 여전히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생존자들도 적지 않다.⁵⁾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집단지결’에 군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과 함께 교과서의 ‘집단지결’ 서술과 관련해 일본군의 강제와 관련한 기술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침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 타임스>가 2005년 6월부터 「도전 받는 오키나와 전투」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집한 게라마 제도 주민 37명의 증언 가운데 약 반수가 전후(戰後) 처음으로 이야기되는 증언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⁶⁾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유례가 없이 참혹한 일이 어떻게 오키나와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존재,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달아날 곳이 없는 폐쇄된 환경, 황민화 교육, 극심한 공포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집단지결’에 대한 증언들을 참고로 하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타자인 이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증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사고하는 이들은 그와 관련한 기억을 당사자로서 끌어안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이렇게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하기보다 어디까지나 사건의 외부에 있는 이로서 사건과의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 태도일까? 이 같은 물음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전후에

라는 식민지 계층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 ‘집단지결’에 는 일본 제국의 문제가 이중으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屋嘉比收, 『戦後世代が沖縄戦の当事者となる試み』, 같은 책, 33면.

6) 謝花直美, 『証言沖縄 「集団自決」: 慶良間諸島で何が起きたか』(岩波書店, 2008) 참조.

일본 본토에서 살고 있는 오키나와 출신 주인공이 '집단지결'이 일어난 가상의 섬 가미시마(神島)로 찾아가는 내용을 다룬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의 소설 『가미시마』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여겨지는 공동체와 그들이 공유하는 기억의 내부와 외부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고찰할 것이다.

2 '집단지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소설

오시로 다쓰히로는 1967년에 오키나와 주민과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사이의 중첩되는 가해와 피해 관계를 그려낸 소설 『카테일파티』를 발표해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오키나와 출신 작가다. 작가에 따르면 『카테일파티』의 '본토 버전'인 소설 『가미시마』(1968년)는 게라마에서 '집단지결'을 명령한 장군이 관광을 위해 오키나와를 찾는 것을 섬사람들이 거부한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서 집필되었다.⁷⁾

제목인 가미시마는 '집단지결'이 일어난 게라마 제도의 가상의 섬의 이름으로, 이 섬의 '집단지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잘 알려진 것으로 그려진다. 1945년 3월 미군이 상륙했을 당시 일개 중대 삼백여 명과 비전투원으로 조직된 방위대 70명, 조선인 군부 약 이천 명이 있던 이 섬에서는 미군이 상륙하면서 '집단지결'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대장이던 구로키(黒木) 중위는 미군이 상륙하기 하루 전에 총장을 거쳐 비전투원을 집결시킨 뒤 "군은 마지막 한 명까지 섬을 사수할 각오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은 자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한 세대에 하나씩 수류탄을 배부한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누군가가 먼저 수류탄의 싹을 뽑기 시작하자 이윽고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여기저기서 수류탄을 폭

7)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6호(글누림, 2015), 168~169면.

발시킨다. 수류탄으로 죽지 못한 사람들은 면도칼로 목을 긋기도 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팽이로 두드려 부수기도 했다. 소설이 묘사하는 이 같은 과정은 뒤에서 살펴보듯 ‘집단지결’을 묘사한 많은 증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329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오키나와 전투 전체에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⁸⁾”지만, 당시 국민학교 교사로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을 데리고 본토로 소개(疎開)한 뒤 그대로 거기서 머물다 전몰자 위령제에 초대를 받은 것을 계기로 23년 만에 다시 섬을 찾은 주인공 다미나토 신코(田港眞行)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섬사람들의 심리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고 싶어 한다. 소설은 이렇듯 다미나토와 섬의 주민, 혹은 섬 바깥에서 온 이들이 과거의 전쟁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가운데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관계를 묻는 동시에 오키나와 전쟁과 ‘집단지결’을 둘러싼 피해와 가해의 복잡한 관계성을 드러낸다.

이는 작가인 오시로 다쓰히로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작품이 발표된 1968년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가노 마사나오(鹿野正直)가 지적하듯 ‘조국 복귀’를 향한 열정은 한편으로 오키나와와 본토 일본의 관계를 되묻는 사상적 움직임을 낳았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오시로 또한 여러 작품을 통해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성을 고찰했다. 가노에 따르면 1967년 후반부터 복귀가 이루어진 1972년 말에 걸쳐 발표한 약 230여 편에 이르는 소설·희곡·시평 등에서 오시로는 동질감과 이질감, ‘일본 없이 살고 싶다’는 바람과 “일본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공존, “일면 동족이자 일면 이족” 등의 말로 일본과 오키나와의 양가적인 관계를 표현하였다.⁹⁾ 이는 작가 자신이 『가미시마』에 대해 “일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친밀감도 있는, 동화와 이화 사이에서

8) 大城立裕, 『神島』, 『神島』(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11면. 이후 소설 본문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의 면수로 표기.

9) 鹿野政直, 『沖縄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2013, 68~69면.

흔들리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¹⁰⁾하고자 했다고 돌아본 것과는 일치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지결'을 비롯한 오키나와의 전쟁 체험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위치 지을 것인가는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¹¹⁾ 오카모토 게이토쿠(岡本惠徳)가 “'집단지결'이라는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를, 사실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입장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지키는 입장을 축으로 그린다”라고 작품의 주제를 요약하며¹²⁾ 일상생활의 평온 속에 전쟁의 비극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의식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듯¹³⁾, 『가미시마』 또한 말하자면 '집단지결'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소설에서도 촌장과 함께 섬사람들에게 자결을 권하고 자신은 살아남은 당시의 국민학교 교장 후텐마 켄슈(普天間全秀)나 전쟁 중에 다미나토와 함께 본토로 소개한 제자들을 비롯한 섬사람들은 전쟁이나 '집단지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피한다. 섬에 가면 '집단지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한 다미나토에게 그의 동생이 “글쎄, 섬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그렇게 기억을 할까, 아니, 그보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닐까”(9)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환영회에서 옛 제자들 몇몇이 부모가 죽은 뒤

10) 김재용, 앞의 글, 169면.

11) '조국' 복귀를 향한 움직임 속에 오키나와 전투 당시의 죽음이 어떻게 국민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로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々の記憶』(お茶の水書房, 2014) 참조. 그에 따르면 오키나와가 '조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원호법(援護法)에 근거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전사자가 '국가를 위해' 죽은 자로 평준화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한 희생이라는 관념 자체가 오키나와의 본토의 매개로 작용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공동체로서의 '조국'을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이 만든 곳곳의 납골당에 분산되어 있던 유골이 국가가 건설한 납골 시설로 통합되는 역할을 기타무라는 '유골의 일본 복귀'라는 말로 표현한다.

12) 岡本惠徳, 『大城立裕『小説・神島』: 『集団自決』題材に根源的な問い』, 『現代文學にみる沖縄の自畫像』(高文研, 1996), 68면.

13) 岡本惠徳, 『水平軸の思想』, 『現代沖縄の文學と思想』(沖縄タイムス社, 1981).

섬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미나토는 나이든 총무과장에게 그들이 왜 죽었는지 묻는다.

“죽었다니……, 전쟁으로요?”

“다 전쟁이지요.”

“자결입니까?”

다미나토는 무심코 서둘렀다.

“개중에는 폭격에 당한 사람도 있었지?”

총무과장이 확인하는 얼굴로 둘러보았다.

“어느 쪽이든 그게 그거지요…….”

수협장이 허리를 숙였다.

“일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있었습니까?”(20)

다미나토의 물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본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전쟁 직후에 마을에 퍼진 이야기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동포들끼리 서로 죽인 것”이니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는 다미나토에게 마을의 한 노인은 오히려 “확실히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후텐마 젠슈의 누이동생인 하마카와 야에(浜川ヤエ)가 일본군 병사와 함께 방공호에서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유골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미나토는, 다시 한 번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지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꺼내지 않고 삼킨다.

“그렇다면 (…) 전쟁 때의 상황을 조사하려고 해도 실제로 있었던 일은 조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미묘한 문제여서요…….”

촌장이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마을 관청에서 2, 3년 전에 전쟁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주민 측에서 본 자료로요. 하지만 어째 어딘가 부족해요. 가령 집단자결이라고 해도, 자기가 도끼를 휘둘러서 가족을 죽이고 어찌다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걸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없고, 목격자라 한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추상적인 기록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촌장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43-44)

다미나토는 어쨌든 추상적인 기록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더라도 한 듯 과거에 학생이었던 청년단장이 ‘본토에서 오신 분’들은 관여해봤자 결국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파고 들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그에게 조언한다. 그 이유는 본토 사람은 아무리 조사를 해봤자 오키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오키나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다미나토를 다른 청년이 ‘반(半) 오키나와인’이라고 부르는 이어지는 장면은 이 소설의 주요한 갈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섬에는 영화를 찍기 위해 온 요나시로 아키오(与那城昭男),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행적을 찾기 위해 나가사키(長崎)에서 온 미야구치 도모코(宮口朋子), 하마카와 야에의 아들과 결혼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뒤 유골을 가지고 야에를 찾아온 기무라 요시에(木村芳枝), 오키나와의 신앙과 생활을 조사하러 온 민속학자 오가키 기요히코(大垣清彦)라는 네 명의 ‘본토인’이 있고, 이들과 섬 주민들 사이에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본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오키나와인’ 다미나토가 있다. 소설의 갈등은 전쟁의 역사를 둘러싸고 이들 각자의 입장이 겹쳐지거나 대립하는 가운데서 생기고, 이는 역사적 비극을 둘러싼 가해와 피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환영회 자리에서 어떤 노인이 일본 군 하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 섬사람들은 집단자결이 어찌고 하면서 야마토 사람들의 험담만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아마토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은 있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는 긴장된 침묵이 찾아온다. 다미나토는 요나시로에게서 전쟁 당시 섬에 있던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미군이 상륙한 뒤의 혼란 속에서 자연 방공호에 숨어있던 오키나와 주민은 조선인 군부를 포함한 일본군에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군부를 학대한 일본 군대에는 아마토인과 오키나와인 둘 다 포함된다. 민속학자 오가키는 병에 걸린 덕분에 ‘어리석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섬에 있던 일본군에 대해 ‘일본인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다.¹⁴⁾ 그런 오가키가 보기에 남편의 유골을 15년 동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아에의 모습은 가엾기는 해도 ‘아름다운 민속’인데, 그는 이런 오키나와의 섬에 ‘일본인의 아름다움의 원형’이 있다고 믿는다. 한편 섬사람들이 일본인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미국인, 일본인, 오키나와인 할 것 없이 전사자를 한데 묶어 제사를 지내는 것에 줄곧 의문을 제기하는 요나시로는 이런 오가키를 보며 “대체 이 오가키라는 학자는 어느 나라의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대체 이 남자는 어느 나라의 인간인가?”(78)라고 자문한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집단지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 같은 물음이다. 오카모토 게이토쿠는 이러한 물음이 오키나와인들 속에 있는 피해자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는데,¹⁵⁾ 이 점은 무엇보다 후텐마 쟁수와 같은 인물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섬사람들은 다미나토와 달리 ‘집단지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려 하지 않지만, 실제 오키나와 전

14) 군대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기는 싫어서 만주로 도망갔다 병에 걸리는 바람에 징병을 피했다는 오가키에 대한 요나시로의 비판적인 시선은 오시로 자신의 것과는 통한다. 오시로는 한 에세이에서 “적어도 전쟁에 반대했기 때문에 징병 기피를 위해 외지에 달아났다고 **나중**에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그 전쟁 와중에 ‘달아나는’ 것이 ‘저항하는’ 것과 같았는지 어땠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때**를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선견지명을 자랑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쓰기도 했다.

15) 岡本惠徳, 앞의 글, 69면.

투에서 젠슈와 같은 마을의 지도자적 인물이 주민들을 '집단지결'로 동원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생각하면, 손지연이 명쾌히 지적하듯 이를 '일본 본토=가해 vs 오키나와=피해'라는 구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¹⁶⁾ 또한 다미나토의 옛 제자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는 목에 면도칼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상처가 없는데 말이죠"라고 대답하는 부분은 '집단지결'이 오키나와 내부, 공동체 내부에서도 좀 더 복잡한 가해와 피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 준다.

16) 손지연,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神島)』: '오키나와 전투'를 사유하는 방식」, 『한림일본학』 제27집(9), 224면.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둘러싼 이 피해와 가해의 문제는 '집단지결'이 군에 의해 강제되었는지 혹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립되는 해석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강성현은 1982년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 학살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오키나와 현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이것이 이에나가 사부로에 교과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진 '집단지결인가 주민 학살인가'라는 논란이 '집단지결'에 이르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오키나와 주민들이 집단 자결이라는 죽음으로 동원되는 과정과 성격의 복잡한 실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집단지결'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마 필드(Norma Field),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야카비 오사무 등의 연구자들이 등장하는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집단지결'에 관한 논의는 자발인가, 강제인가 혹은 가해인가, 피해인가라는 구도 아래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강성현,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지결(集團自決)'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6(1), 2006.4. 단, 손지연도 지적하듯 『가미시마』가 다루는 문제의식은 오시로기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문제에 자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지결'과 오키나와 전투를 포함한 전쟁 책임과 관련한 문제에서 오키나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인식한 논자 또한 적지 않았다. 福間良明, 『焦土の記憶』, 新耀社, 2011, 205~208면 참조. 후쿠마는 오시로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내부의 '전쟁 책임 추궁'이라는 문제를 직접 제기한 가와미쓰 신이치(川滿信一)를 비롯해 '집단지결'이 일본군과 오키나와 주민 사이의 문제인 동시에 '강자'와 '약자'의 문제, 일본군 내부 및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히에라르키의 문제이기도 함을 지적한 오시로 마시야스(大城將保)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가령 오시로(시마 쓰요시)의 경우 『오키나와 전투를 생각한다』에서 육군병원에 있던 오천~칠천 명에 이르는 중병환자의 '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집단지결'이 결국 결리적거리는 약자를 먼저 처치한다는 전장의 논리, 군대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군 내부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 가운데 약자와 강자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嶋津与志, 앞의 책, 224~226면 참조.

나카사키 출신인 도모코에 이르면 오키나와 전투를 포함하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 경험이 오키나와라는 지리적 범주를 벗어나서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힌다. 도모코는 원폭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경험을 무척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요나시로에게 말한다. 그녀는 섬에서도 원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럴 때 섬사람들은 일단은 동의를 표한 뒤 이야기를 섬의 전쟁에 대한 것으로 가져가곤 한다. ‘집단지결’에 관여한 후텐마는 도모코가 원폭 이야기를 하면 외면하고 가버린다. 이렇게 소설은 희생자로서의 일본이라는 내셔널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는 원폭의 기억이 오키나와의 희생과 어떻게 겹쳐지고 어긋나는지를 보여준다. 오키나와인 주민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본군 아버지를 둔 도모코가 원폭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이 소설이 다루는 오키나와 전투의 중층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 홀로코스트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논의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처럼, 히로시마·나카사키의 원폭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가해의 역사를 가리는 ‘스크린’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토인, 일본인이라는 가해자성과 피폭자라는 피해자성, ‘집단지결’과 황민화 교육의 희생자로서의 오키나와 주민이라는 피해자성과 일본군, 일본인의 일원이라는 가해자성은 어떻게 체로섬 게임이 되거나 고통의 위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¹⁷⁾ 소설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집단지결’과 같은 고통은 그 고통을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공동체의 경계 바깥에서는 쉽게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 나간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의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17) 특히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Michael Rothberg, *Multi-directional Memory: Remembering the Holocaust in the Age of Decolon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집단지결'과 같은 과거에 대해 조사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다미나토나 요나시로 자신에게도 똑같이 제기된다. 요나시로는 도모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의 비극을 원폭의 비극과 한 줄기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착안도 좋다. 역시 원폭의 땅에서 자란 사람이 생활에서 얻은 것이리라"(96)라는 판단을 내린다. 여기서 그가 문제시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해와 피해가 무화된다는 점이다. 죽은 사람 즉 희생자의 가해자성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요나시로는 결국 아예의 남편이 도모코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군인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안 도모코는 아예와 함께 유골을 찾으러 갔다 땅에 묻혀 있던 불발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만다. 유골이 아예의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그 죽음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본토 일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셈이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섬사람들과 달리 남편의 뼈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살고 있던 아예는 이로써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도모코의 죽음을 둘러싸고 위령제를 보기 위해 와 있던 본토 사람들은 아예를 비난하고 반대로 섬사람들은 본토 사람인 요시코에게 시어머니의 유골 찾기를 돕지 않은 책임을 돌리는 사이, 다미나토는 결국 '집단지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언을 얻지 못한 채 섬을 떠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이 소설은 '집단지결'의 진실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담아내고 있다. 먼저, '집단지결'을 체험한 사람들이 죽었거나 살아남았을 경우에도 침묵한다는 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의 증언은 거의 부재한다. 그 가운데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에서의 전'후(後)'를 살아가지 못하는 아예가 있다. 섬의 무당이기도 한 그녀는 신성한 예배 구역이었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죽은 마을 사람들의 유골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섬과 본토의 경계에 있으며 외부자인 동시에 내부자이기도 한 다미나토는

‘집단지결’의 진실을 알고 싶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지만, 마을 사람들의 침묵과 외면 앞에서 결국 아무 것도 알아내지 못한다. 마지막에 그가 깨닫는 것은 도모코의 죽음에는 그것을 책임질 만한 어떤 특정한 죄인도 없다는 것이고, 이는 어쩌면 ‘집단지결’에 가담하게 된 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혹은 주민들에게 수류탄을 건넨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군인에 대해서조차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추상적인 ‘전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그는 모든 인간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음을 안다. 전쟁과 ‘집단지결’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믿는 요나시로는 도모코에게 그랬듯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섬사람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가해와 피해를 정확하게 따지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와 피해를 둘러싼 역사적인 진실을 끝까지 추궁하려는 그가 밝혀낸 가해의 진실은 도모코의 죽음을 가져오고 마는 것이다.

3. ‘집단지결’에 대해 듣는 사람의 위치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집단지결’ 경험자인 긴조 시게아키(金城重明)의 수기 『‘집단지결’을 마음에 새기고』를 통해 말이라는 단서를 통해 ‘집단지결’과 같은 폭력의 기억을 체험자와 비체험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1945년 3월 말에 도카시키키에서 ‘집단지결’을 경험하고 살아남아 목사가 된 긴조의 증언에서 신조가 읽어내는 것은 이 사건을 설명하는 언어 행위 자체에 내재한 한계인데, 이렇게 침묵에 에워싸인 말 속에서 “이해 불가능한 무언가를 보고 말았다”라는 경험의 임계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저희 주민들은 이십전심으로 사랑하는 육친을 죽였습니다. 흡사 지옥도 같은 아버지육이 펼쳐졌습니다. 먼도칼이나 낫으로 경동맥이나 손목을 자르기도 하

고, 끈으로 목을 조르기도 하고, 곤봉이나 돌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전율할 만한 갖가지 방법이 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댔을 때 저는 비통한 나머지 오열했습니다.

저희는 '살아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¹⁸⁾

'집단지결'에 대한 이 같은 증언은 시간의 회귀를 가져오고, 증언자들은 이 증언 속에서 그 시간에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고 신조는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의 말을 통해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어머니'의 시선과 마주치고 그들의 눈을 통해 일상에 가려져 있던 전장의 광경을 본다.¹⁹⁾

부모가 자식을, 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삼촌이 친척을……. 수류탄을 폭발시키고 손도끼나 낫으로 자르고 바위에 내리치고 불속에 집어던져서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당시의 광기와 같은 상황은 어떤 말로 해도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실제로 '집단지결' 경험자인 어머니 세대는 당시의 모습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쓸쓸하고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봉인해 온 것, 딱지가 앉기는커녕 흉터가 된 곳을 파헤쳐서 생생한 상처를 만드는 거야. 체험자는 상처가 깊을수록 이야기를 하지 않아”라고 쓰네히코 씨는 이야기한다.²⁰⁾

『증언 오키나와 '집단지결』에 등장하는 미야자키 쓰네히코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 '집단지결'의 정황 자체는 긴조뿐 아니라 많은 체험자들의 증언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체험자들의 이러한 말을 단서 삼아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피해자의 시선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언어가 보여주지

18) 金城重明, 『「集團自決」を心に刻んで』(高文研, 1995), 54면.

19) 新城郁夫, 『「死にゆく母」のまなざし』, 『沖繩の傷という回路』(岩波書店, 2014), 133면.

20) 謝花直美. 앞의 책, 100면.

않는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증언을 통해 추체험하고 기억을 나누어가지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실제로 긴조 또한 당시의 오키나와 문화가 멸시를 받음으로써 오키나와인의 콤플렉스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일본인이 되기’ 위한 황민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이 ‘집단지결’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사고하고자 한다. 물론 긴조 자신의 말처럼 교육만으로 이런 식의 연쇄적인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긴조는 ‘집단지결’이 일본군이 배치된 섬에서만 벌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집단지결’의 배후에 일본군과 주민의 공존과 군의 압력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한다. ‘집단지결’의 군 명령 유무에 대한 재판에서 군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원고 측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던 미야기 하쓰에(宮城初枝)의 증언에서도 당시 마을 사람들이 “싸워 이길 때까지”²¹⁾ 군에 협력하고 군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하쓰에 자신도 한 일본군 중사가 “도중에 만일의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본 여성으로서 훌륭하게 죽으라”며 건넨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군인에게 자결용 수류탄을 받았다는 다른 증언에서도 군인과 주민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재판은 증언을 통해 ‘집단지결’을 지시하는 명확한 언명을 찾아내려 하지만, 도미야마 이치로가 말하듯 ‘집단지결’을 명하는 언어 행위가 온갖 장면에서 “○○를 명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명명백백하다.²²⁾

여기에 더해 ‘집단지결’을 이야기하는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종종 집단적인 일체감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옥쇄’했다고 믿은 사람들은 남겨지지 않기 위해 죽음을

21) 宮城晴美, 『新版 母が残したもの: 沖縄・座間見島『集団自決』の新しい眞實』(高文研, 2008), 16면.

22) 富山一郎編, 『座談會』, 『記憶が語りはじめる』(東京大學出版會, 2006), 239면.

서두르고, 결국 모두가 함께 죽을 거라는 생각은 가족을 제 손으로 죽이는 행동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많은 증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때로 '집단지결'은 이러한 일체화된 고양감이 깨지는 순간 정지되곤 한다.

한 아이의 “죽고 싶지 않아”라는 절규는 방공호 안에 있던 어른들을 흥분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려놓았다.²³⁾

원 안에서는 불발된 수류탄을 보고 “다른 가족들의 뒤에 남겨지는가” 하며 초조해 하는 목소리도 오갔다.

그때였다. 유스케 씨와 요시카쓰 씨의 모친 우시 씨(당시 50세)가 큰소리로 외쳤다. “봐, 신슈 오빠는 신보를 업고 있어. 그래, 살아있을 동안은 살아있어야 해.”

그리고 우시 씨는 수류탄을 쥐고 있던 유스케 씨에게 손짓을 섞으면서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유스케, 수류탄은 버려. 죽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봐, 오빠들을 쫓아 달아나자.”

서 있던 친척 남성이 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시 씨의 박력에 압도된 듯 집단은 일어났다. 요시카쓰 씨는 “우리 앞에 집단이 또 하나 있었다. 다른 가족은 한창 자결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²⁴⁾

혼자 미군에 붙잡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던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끈이나 옷가지로 목을 걸고 다 같이 경사면을 미끄러져서 동시에 죽으려고 한다. 하지만 도중에 누군가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는 바람에 동시에 죽을 수 없게 되자 '집단지결'은 거둬 유예된다. 그런 중에 나무에 열린 빨간 열매를 먹은 한 인물은 입속에 새콤한 맛이 퍼지자마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은 우리가 이제부터 섬을 지키자”라는 말을 꺼내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죽겠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23) 宮城晴美, 앞의 책, 133면.

24) 謝花直美, 앞의 책, 39~40면.

한 가족의 경우, 함께 죽기 위해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빼내려 하는 순간 조모가 “나는 방공호에 간 둘째 아들과 함께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순간 죽음을 향해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진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라며 달아나려고 아이의 행동은 죽음을 결의하고 있던 어른들의 긴장감을 풀어 놓는다. 야카비가 분명히 지적했듯,²⁵⁾ ‘집단지결’을 멈추는 것은 공동체와 합일된 자기 목소리에 균열을 내는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달려 있음을 ‘집단지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보여준다.

하지만 보통 가족 내의 약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자의 목소리는 또 다른 타자의 존재에 의해 무화될 수 있다.

“원숭이가 견고 있어.” 할머니가 외쳤다. 처음 보는 미군 병사의 모습에 두려워 떨었다²⁶⁾

‘집단지결’을 촉발한 것 중 하나는 섬에 상륙한 실제 미군들의 존재였고, ‘귀축영미(鬼畜英米)’ 사상을 주입받은 주민들은 미군에 대한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증언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때로 그러한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것은 겉보기의 타자라는 존재 자체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집단지결’의 강제성이 문제됨에 따라 침묵을 깨고 새롭게 증언하는 체험자들이 다시 떠올리기조차도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것이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집단지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괴롭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남겨야만 한다”²⁷⁾,

25) 屋嘉比收, 앞의 글, 63면.

26) 謝花直美, 앞의 책, 187면.

27) 같은 책, 64면.

“‘집단지결’ 체험은 늘 머릿속에 있다. 삼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들여서 잊어버리려, 잊어버리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 군이 건넌 수류탄이 주민의 ‘집단지결’에 쓰였다. 그래도 군의 책임은, 군 명령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체험자들의 발언은 현재 ‘집단지결’의 증언이 읽히고 쓰이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군의 직접 명령 여부에 문제를 축소시키며 ‘집단지결’에 대한 군의 개입을 부정하려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체험자의 절실한 목소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의의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가족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던 이 ‘타자’의 존재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극도의 긴장과 집중 속에서 어는 한 점에서 일어나는 극한적인 사건”²⁸⁾으로서의 ‘집단지결’을 ‘우리’의 것으로서 사유하기 위해 필요한 물음 중 하나다.

오카모토 게이토쿠가 『수평축의 사상』에서 제기한 물음을 이와 연관하여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카시킴의 “굴절된 ‘충성심’과 공동체의 생리가 이 비극을 낳았다”라는 이시다 이쿠오(石田郁夫)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카모토는 ‘집단지결’을 지탱한 것이 일면 이 같은 공동체의식 혹은 ‘공동체의 생리’일 수도 있었음을 인정한다.²⁹⁾ 이는 앞서 살펴본 ‘집단지결’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된 공동체의 일치감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카모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같은 공동체의식이 어째서 공생이 아니라 자기부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다. 오카모토가 보기에 복귀운동은 오키나와의 공동체의식이 ‘공생’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이기도 했는데, 이때 공동체의식에 근거한 이 운동이 설정한 것은 ‘이 민족 지배로부터의 탈각’과 ‘조국 복귀’라는 조직화의 논리였다. “도카시킴

28) 林博史, 앞의 책, 204면.

29) 岡本惠徳, 『水平軸の思想』

섬의 집단자결 사건'과 '복귀운동'은 (...) 한 가지가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이라는 오카모토의 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일상생활의 질서를 위협하는 근거로 '이민족'이 지정되는 동시에 이 같은 위기를 구원하는 존재로서 '조국'이 미화되는 상황은, 앞서 보았듯 오키나와의 주민이 어엿한 일본인으로서 '집단지결'에 동원되는 과정이 미군이라는 타자의 가시적인 존재에 의해 촉발되는 상황과 포개진다.

물론 이로부터 오카모토는 양자의 공동체의식에서 '집단지결'과 72년 반환으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체의식을 둘러싼 오카모토의 논의가 '집단지결'을 도카시킴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같은 조건 아래에서라면 오카모토 자신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로서 대상화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신조의 말처럼 증언을 듣는 이는 상상을 통해 체험자의 기억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때로 청자는 사건의 바깥에서 증언을 듣고 심지어 다양한 판단을 내리는 외부자가 되기도 한다. 『가미시마』에서 요나시로가 원폭과 관련한 도모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듯, 혹은 '집단지결'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다미나토가 '반오키나와'인으로 외부화되는 가운데 결국 어떠한 증언도 얻지 못하고 섬을 떠나가듯, 쉽게 언어화될 수 없는 사건의 단편적인 증언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는 종종 스스로를 사건의 외부에 놓게 된다. 그 같은 증언을 증언으로서 듣고 있는 이상 어쨌든 그 같은 일을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인간은 '나'가 아닌 것이다. 사건과 청자의 사이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뿐 아니라 『가미시마』나 오카모토가 제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문제 또한 개재하고 있다. '집단지결'을 묘사하는 증언에서 느끼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함은, 마치 남의 일을 보듯 반응하는 청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묻게 만든다. 한편, 오카모토의 논의를 '당사자성의 획득'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한 야

카비를 경유하여 신조는 이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미연의 시제에 주목한다.³⁰⁾ ‘당사자성의 획득’이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공감적 자기입입’과 일맥상통하며 대상을 어디까지나 ‘타자’로 인식함으로써 ‘체험’을 ‘경험’으로 보편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에무라 다다오(上村忠男)를 비판하면서, 신조는 ‘듣는’ 행위가 ‘나’ 혹은 우리의 동일성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만일 증언을 들음으로써 실제로 외부에서 질문하고 판단하는 청자의 안전한 위치가 흔들린다면, 오키나와의 상처는 증언을 ‘듣는’ 행위를 통해 다른 시공간의 상처와 중첩으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신조가 말하는 하나의 ‘회로’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끔찍함을 넘어서려는 상상력과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³¹⁾

4. 맺으며

‘집단지결’에서 피해와 가해는 「가미시마」가 잘 보여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겹쳐져 있다. 예컨대 ‘집단지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단독적으로 ‘자결’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실제 생존자가 많은 경우 그러하듯, 이 말에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집단지결’을 경

30) 新城郁夫, 앞의 책, 71면.

31) 절멸 수용소의 가스실을 찍은 네 장의 사진을 다룬 글에서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은 이미지가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베일이라는 비판에 대해 ‘하나’ 이미지 또는 ‘전체’ 이미지가 아닌 ‘갈라진 틈-이미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미지의 증가와 결합은 보여지거나 말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던 것들을 보여주고 말하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디디 위베르만이 무엇보다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상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증언의 존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관념을 반박하지만, 부분적인 증언이나 이미지를 통해 (사건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끝없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상상이라는 ‘노동’이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레베카, 2017) 참조. 물론 분명 누군가는 그 같은 ‘노동’을 기꺼이 거절할 것이므로, 그 거절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가족의 약한 구성원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왕왕 살아남은 사람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주었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각각 다른 맥락에서의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자결’을 가능하게 한 구조와 심리의 ‘피해’에 대한 증언 자체가 곧장 실제로 ‘자결’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가해’의 증언이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때 ‘집단자결’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당사자성’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일이다. 산양의 음침한 울음소리에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집 뒷마당에 있는 산양 우리로 달려갔다. 웬걸, 거기서는 할아버지가 뒷다리를 묶은 산양을 공중에 매달아 죽이고 있었다. 잘린 목에서 뚝뚝 떨어지는 산양의 피를, 준비되어 있던 양동이가 받고 있었다. 산양을 죽일 때, 어른들은 아이들이 근처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결코 그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가 눈치 챌까 봐 조마조마하며 그늘에서 살며시 엿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나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혼나겠다’ 하고 몸을 움츠렸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혼내지 않고 자그맣게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들리게끔 “이 사람은 목 자르기 전문이니까”라고 내뱉었다. 놀란 듯 고개를 든 할아버지의 표정은 순식간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쓸쓸한 얼굴로 바뀌었다. (...)

철들었을 무렵 어머니에게 들어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목 자르기 전문’ 발언 이후 나는 가다랑어포 제조장의 소음이 들려와도 견학하러 가는 일을 그만두었다. 가다랑어를 해체할 때는 우선 목에 식칼을 넣어서 대가리를 자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보면 할아버지가 ‘괴물’이 되어 가족의 목을 자르는 장면을 상상할 것 같아 가다랑어 해체 풍경을 견학할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다.³²⁾

32) 宮城晴美, 앞의 책, 88~90면.

'집단지결'에서 살아남은 미야기 하루미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목 자르기 전문'이라고 불려서 어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 '목 자르기 전문'이란 말할 것도 없이 '집단지결'에서 가족을 죽이기 위해 면도칼로 그들의 목을 잘랐던 무수한 (주로 남자) 어른들의 행위와 겹쳐지는 표현이며, 어쩌면 '집단지결'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증언보다 더 독자를 섬뜩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듯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지 않고 불쑥 현재를 침범한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상은 명시적인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에도 줄곧 이어지고 있는 '집단지결'의 경험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 장면은 선명하게 보여준다. 언뜻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던져진 할머니의 말에서 어떠한 감정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원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를 수집하는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집단지결'로 인해 죽은 이가 자신을 죽이고 살아남은 이에게 품는 감정이란 어떤 것일까? 『가미시마』는 '집단지결'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소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야기'로조차 거의 다시 쓰이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것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가미시마』에서 볼 수 있듯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추상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데에는 어쩌면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집단지결'과 오키나와 전투를 둘러싸고 중첩되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 속에서는 죽은 이들조차 무고하지 않을지 모른다. 증언을 통해 사건을 알고자 하는 이는 그 복잡한 관계 속 어디에 위치할까? 오키나와의 기지를 둘러싸고 지금도 이어지는 투쟁을, 혹은 무수한 곳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언젠가는 역사가 될 비극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집단지결'에 대해 제삼자인 척 논평할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大城立裕, 『神島』, 『神島』,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 岡本恵徳, 『水平軸の思想』, 『現代沖繩の文學と思想』, 沖繩タイムス社, 1981.
- 岡本恵徳, 『現代文學にみる沖繩の自畫像』, 高文研, 1996.
- 鹿野政直, 『沖繩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2013.
-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繩戦跡をめぐる人々の記憶』, お茶の水書房, 2014.
- 金城重明, 『「集団自決」を心に刻んで』, 高文研, 1995.
- 鳴津与志, 『沖繩戦を考える』, ひるぎ社, 1983.
- 新城郁夫編, 『攪亂する島』, 社會評論社, 2008.
- 新城郁夫, 『沖繩の傷という回路』, 岩波書店, 2014.
- 謝花直美, 『証言沖繩 「集団自決」: 慶良間諸島で何か起きたか』, 岩波書店, 2008.
- 富山一郎編, 『座談會』, 『記憶か語りはじめる』, 東京大學出版會, 2006.
- 林博史, 『沖繩戦 強制された「集団自決」』, 吉川弘文館, 2009.
- 福岡良明, 『焦土の記憶』, 新曜社, 2011.
- 松島泰勝, 『琉球獨立論: 琉球民族のマニフェスト』, バジリコ株式會社, 2014.
- 屋嘉比收編, 『友軍とガマ』, 社會評論社, 2008.
- 강성현, 「죽음'으로의 동원과 이에 대한 저항 가능성: 오키나와 '집단자결(集団自決)'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6(1), 2006.
- 김재용, 「오시로 다쓰히로 소설가와의 대담」, 『지구적 세계문학』 6호, 글누림, 2015.
- 손지연, 「전후 오키나와(인)의 성찰적 자기서사 『신의 섬(神島)』: '오키나와 전투'를 사유하는 방식」, 『한림일본학』 제27집(9).

Abstract

How to Speak about 'Syudanjiketsu' and the Location of Listeners

Sim, Jeong-myung*

During the Battle of Okinawa about a third of the Okinawan civilian population were killed. Especially in Kerama islands where U.S. forces first landed, many civilians are killed/made to kill each other by so called 'mass suicide'(syudanjiketsu). Since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instructed publishers of school textbooks to alter descriptions of the 'mass suicide' including eliminating the references to the Japanese military's direct role, some survivors who had experienced or witnessed the 'mass suicide' began to break the silence of decades. Reading these testimonies, this paper considers how 'we', separated from the event both by time and space, can take this tragic event as 'our' own experience. And trying to answer this question, it also analyzes Oshiro Tatsuhiro's novel *Kamishima* which is about how different speaking about 'mass suicide' is.

Key Words: 'mass suicide', Okinawa, Oshiro Tatsuhiro, Kamisima, testimony

<필자 소개>

이름: 심정명

소속: 건국대학교

전자우편: yorito@gmail.com

논문투고일: 2017년 6월 20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22일

* Konkuk University